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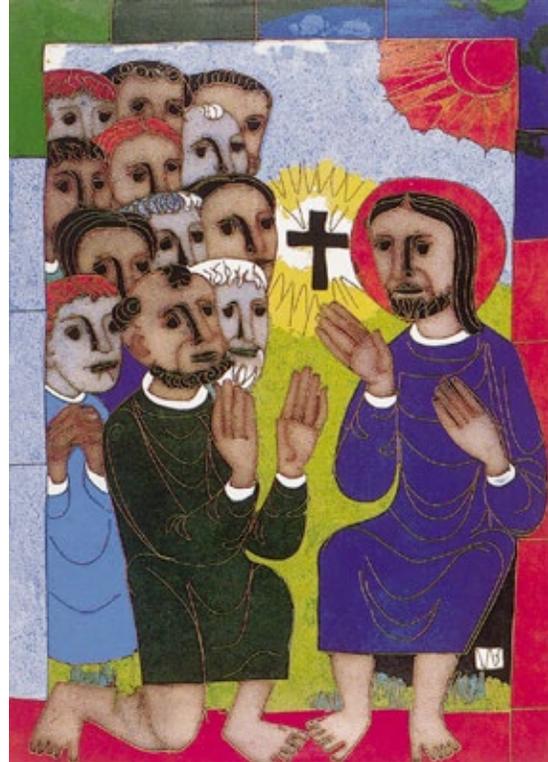
2022년 6월 26일
제1902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루카 9,59-60)



에기노 바이너트 작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다해)

제 1 독서 1열왕 19,16ㄴ.19-21 |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나섰다.

화답송 시편 16(15) |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제 2 독서 갈라 5,1.13-18 |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음 루카 9,51-62 |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 ⁵¹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 ⁵²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 ⁵³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 ⁵⁴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 ⁵⁵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 ⁵⁶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 ⁵⁷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⁵⁸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 ⁵⁹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⁶⁰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 ⁶¹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⁶²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복음 묵상

‘예루살렘 상경기’라 불리는 루카 복음 9장 51절 - 19장 28절의 말씀은 구원이 실현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험난한 여정에서 당신의 협력자를 필요로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복음에서 당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로써 주님께서서는 어느 한 곳에 편히 정착하거나 안주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온 지방을 돌아다니시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끊임없이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당신의 사명이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또 다른 이에게 예수님께서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인륜대사인 부모의 장례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시며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더욱 시급하고 고귀한 가치인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하기를 청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1독서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제2독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삶’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와 모든 순간에, 온 마음으로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자주 성령께 간청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수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황 주일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시며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로마에서 공부할 때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알현한 적이 있는데, 환한 웃음으로 손을 내미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셨던 노사제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과 함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황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민영 예레미야 신부>

교황주일



교황주일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전 세계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6월 29일)과 가까운 주일에 기념합니다. 교황주일에는 교황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특별헌금을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주일을 맞아

- ▶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직분을 수행하는 교황이 그 직분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 ▶ 교황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 ▶ 교황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을 봉헌합니다.

교황을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의 목자요 임금이신 하느님,
 친히 주님의 일꾼 (프란치스코)를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우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말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묵상

잠든 그리스도인

하느님은 우리에게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요구하십니다. 만남을 위한,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징표를 알아보며, 기도와 성사로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며, 하느님을 잊지 않기 위해 잠들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잠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글픈 삶입니다. 이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잠들지 마시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매일 묵상〉



축하합니다!

2022 First Holy Communion

2022년도 첫 영성체 예식이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중에 있었습니다. 27명의 어린이들이 성체성사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과 봉사자 여러분, 학부모님들과 기도해 주신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교황주일 2차 헌금

• 모든 교회는 교황주일을 맞이하여 교황님의 사목활동을 돕고자 특별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K o C 월례회의

• 일시 : 6월 26일(일) 오전 11:30 (A-1,2)
 • K of C Installation : 7월 17일(일) 오후 12시, 성당

3 루카회 월례회의

• 일시 : 6월 26일(일) 오전 11:30 (B,3,4)

4 병자 영성체

• 일시 : 7월 1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703) 264-0050 또는 사무실
 • 신청: 6월 29일(수)까지

5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일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7월 2일(토) 오전 10:30 (첫 토요일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 토요일 신심 미사로 토요일 새벽 6시 미사는 없습니다.

6 7주간의 여름 성경 특강

• 기간 : 7월 6일(수) - 8월 17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8:30
 • 내용 : 인물 중심으로 한 성경 이야기(7강의)
 • 강사 :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님
 • 문의 : 교육부 (571) 275-0691
 • 강의 일정과 제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7 전신자 연중 특강

• 주제 : "회복의 삶"
 • 일시 : 7월 10일(일) 오후 1시 - 오후 3:30 (친교실)
 • 강사 : 김태광(아우구스티노) 신부님 (팔로티회)
 • 문의 : 교육부 (571) 275-0691

8 알링턴 교구 주교 집전 다민족 미사

교구내 다민족들이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고 미사와 행사를 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15일(금) 오후 7시
 • 장소 : Our Lady of Good Counsel Catholic Church (8601 Wolfrap Rd SE, Vienna, VA 22182)
 • 문의 : (703) 841-3881

9 요한회 소식

• 요한회 6월달 모임은 지난 주의 피크닉으로 대신해 따로 모임은 없습니다. 아울러 7월달 모임은 없습니다만 (여름휴가) 번개모임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회원분들이 여름을 건강히 지내시기 바라며 8월 모임에 뵙겠습니다.

10 수녀님 연피정 안내

• 이 스텔라 수녀님 : 7월 7일(목) - 7월 15일(금)
 • 안 다니엘 수녀님 : 7월 26일(화) - 8월 3일(수)
 •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11 CYO 성가대원,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미사 중 노래할 성가대원과 피아노 반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6th-12th 대상)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12 하상 한국학교

• 하상 한국학교가 개강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혀 정체성을 지니고 세계 속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 한국학교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6월 19일(성체 성혈 대축일)

주일 헌금	\$ 6,832.00
교무금	\$ 8,270.00
교무금(신용카드)	\$ 9,030.00
2차 헌금	\$ 2,568.00
감사 헌금	\$ 480.00
온라인 봉헌	\$ 3,020.00
합계	\$ 30,200.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6월 30일(목) 오후 5:00-6:00
 7월 1일(금) 저녁 8:00-9:00
 7월 3일(일) 오전 6:00-7:00

1. 성 정바로 성당 주일 미사 강론
2. 윤원진 신부의 위대한 성인들 :
 - "아브라함" (1)

“ **복사기 사용 지침** ”

“복사기가 또 고장났어요.”
 “누가 사용했는데요?”
 “몰라요, 고장났어요.”

- ▶ 성당 복사기 사용은 본당행사 및 교육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개인적인 복사는 금합니다.
- ▶ 잦은 고장으로 복사기 사용시 사무실에 승인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인없이 사용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